

[프로야구]'홈런 광광' 롯데, 두산 연승 행진에 제동...넥센 3연승

등록 2017.08.30 22:30:49



【서울=뉴스시스】박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 베어스 경기, 롯데가 5대2로 승리 후 조원우 감독과 코칭스태프들이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스시스】김희준 기자 = 롯데 자이언츠가 두산 베어스의 연승 행진을 멈춰세웠다.

롯데는 30일 잠실구장에서 펼쳐진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과의 경기에서 강민호, 이대호의 대포와 선발 송승준의 호투에 힘입어 5-2로 승리를 거뒀다.

전날 애매한 판정 속에 두산에 5-7로 석패했던 롯데는 설욕전을 펼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2연패에서 벗어난 롯데는 65승째(56패 2무)를 따내 4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롯데 안방마님 강민호는 0-0으로 팽팽히 맞선 7회초 결승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팀 승리에 앞장섰다. 강민호는 포수로는 박경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3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이대호는 3-0으로 앞선 8회 2사 1루에서 썩기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거인 군단 4번 타자의 면모를 한껏 뽐냈다.

롯데 선발 송승준은 6이닝 동안 4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을 내주고도 두산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송승준은 이날 호투로 시즌 9승째(4패)를 따냈다.

두산은 불펜이 흔들리면서 최근 6연승 행진을 마감했다. 홈경기 8연승 행진도 끝났다.

47패째(70승 3무)를 당한 두산은 선두 KIA와 격차가 2.5경기로 벌어졌다.

선발 함덕주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승희는 강민호에게 결승 솔로포를 얻어맞고 1이닝 1실점을 기록, 시즌 4패째(7승)를 떠안았다.

좌완 영건 함덕주는 6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슈아내며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없이 물러났다.

양 팀 선발 송승준과 함덕주의 호투 속에 6회까지 지루한 '0'의 균형이 이어졌다.

균형은 큰 것 한 방으로 깨졌다.

롯데는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민호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시즌 20호)를 작렬해 1-0으로 앞섰다.

8회 황진수, 전준우의 연속 안타로 1사 1, 3루를 만든 롯데는 손아섭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했고, 뒤이어 타석에 들어선 최준석이 우전 적시타를 뽑아내 3-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롯데는 이어진 2사 1루에서 이대호가 좌월 투런포(시즌 29호)를 작렬, 5-0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다.

두산은 8, 9회 1점씩을 만회했지만, 추가점을 내지 못해 두산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넥센 히어로즈가 SK에서 건너온 유망주 좌완 투수 김성민의 호투와 마이클 초이스의 썩기 투런포를 앞세워 SK 와이번스를 10-0으로 완파했다.

지난 5월 중순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넥센으로 이적한 김성민은 5%이닝 동안 4개의 안타와 3개의 볼넷을 내주고 SK 타선 을 무실점으로 봉쇄했다.

친정팀에 비수를 꽂는 호투를 선보인 김성민은 시즌 4승째(1패)를 따냈다.

4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으로 활약한 넥센의 불박이 4번 타자 김하성은 유격수 최연소 100타점 달성 신기록(21세 10개월 13일)을 작성했다. 2003년 KIA 홍세완이 세운 25세 8개월 15일 기록을 훌쩍 앞당겼다.

타선에서는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선제 2타점 적시 2루타를 날리는 등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고, 마이클 초이스가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타선에 힘을 더했다.

2회초 2사 1, 2루에서 터진 이정후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기선을 제압한 넥센은 5회 1사 1루에서 초이스가 좌월 투런포(시즌 6호)를 작렬해 4-0으로 달아났다.

넥센은 8회 대거 5점을 더해 승부에 썩기를 박았다.

3연승, SK전 7연승을 달린 넥센은 64승째(58패 1무)를 수확해 5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서울=뉴스시스】박주성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 대 두산 베어스 경기, 7회 초 투아웃 롯데 강민호가 솔로 홈런을 치고 팀 동료 번즈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17.08.30. park7691@newsis.com
SK는 에이스 메릴 켈리를 내고도 타선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 패배의 쓴 잔을 들이켰다. 이틀 연속 넥센에 진 SK는 61패째(62승 1무)를 기록해 6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6이닝 7피안타(1홈런) 4실점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인 켈리는 시즌 6패째(13승)를 당했다.

KIA 타이거즈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경기 후반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5-1로 이겼다.

이틀 연속 삼성을 제압하며 삼성전 6연승을 달린 KIA는 72승째(44패 1무)를 수확, 2위 두산과 격차를 2.5경기로 벌리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2012년 5월 19일 사직 롯데전 이후 1929일 만에 선발로 등판한 심동섭은 5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4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 승리 투수가 됐다. 시즌 2승째(1패 2세이브).

2010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 줄곧 불펜 투수로 활약한 심동섭은 개인 통산 4번째 선발 등판에서 프로 데뷔 첫 선발승을 품에 안았다.

KIA 외국인 타자 로저 버나디나는 0-0으로 맞선 6회초 결승 솔로포를 날리는 등 5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안치홍은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쾌조의 타격감을 뽐냈다.

버나디나의 홈런으로 균형을 깬 KIA는 7, 8회 2점씩을 더 올려 승부를 갈랐다.

3연패에 빠진 삼성은 72패째(46승 4무)를 당해 9위에 머물렀다.

삼성 선발 정인욱은 6회까지 호투를 이어가다 7회 흔들리면서 6⅓이닝 5피안타(1홈런) 3실점을 기록, 시즌 2패째를 떠안았다.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는 LG 트윈스가 뒷심을 발휘해 한화 이글스에 6-5로 역전승을 거뒀다.

0-4로 끌려가던 LG는 6회초 박용택의 적시 2루타 등으로 2점을 올려 추격했고, 7회 손주인의 희생플라이로 1점차까지 따라 붙었다.

8회 정성훈의 중전 적시타로 동점을 만든 LG는 9회 1사 1, 2루에서 손주인이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적시 2루타를 작렬해 6-4로 승부를 뒤집었다.

LG는 송광민에게 솔로포를 허용해 1점차로 쫓겼지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마운드에 오른 이동현이 ⅔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그대로 이겼다. 이동현은 시즌 4세이브째(2승 3패)를 챙겼다.

역전 결승타를 뽑아낸 손주인은 2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하며 LG 타선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선보였다.

최근 4연패의 사슬을 끊은 LG는 58승째(56패 2무)를 수확해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전날 승리의 상승세를 잊지 못한 한화는 67패째(50승 1무)를 당했다. 순위는 여전히 8위다.

kt 위즈는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벌어진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9-5로 이겼다.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는 시즌 14호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2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 타선을 이끌었다. 유한준이 4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중심타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선발 류희운의 뒤를 이어 등판한 kt 주권은 3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3승째(5패)를 따냈다.

홈경기 3연패에서 벗어난 kt는 38승째(81패)를 올렸다. 순위는 그대로 최하위다.

2연승, kt전 4연승을 마감한 NC는 52패째(69승 1무)를 당했다. 3위 NC위 2위 두산의 격차는 여전히 3경기 차다.

jinxij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